

리터의 자연미학에 대한 비판과 자연신학에 의한 ‘풍경’의 탄생

박 영 선 (중앙대)

주제분류 문화철학, 미학

주요어 테오리아, 풍경, 자연미, 숭고, 자연신학

요약문

자연을 단순히 이용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름다운 것으로, 즉 ‘풍경’으로 본 것은 언제부터일까? 리터가 제시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람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연을 ‘풍경’으로 감상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따른 자연관의 변화에 의해 자연과 인간이 서로 단절되었고, 이런 이분화가 가져온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연을 ‘풍경’의 차원에서 관조하는 감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리터의 테제는 자연미의 발생을 사회철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였다고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이전에 이미 자연을 ‘풍경’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시각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롱기누스가 수사학에 대한 논의 가운데 자연의 숭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대초기에 야생적 자연을 접하면서 이를 미학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야생적 자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기독교적·플라톤적인 자연해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자연에 관한 자연신학인 것이다.

따라서 추하고 야생적인 자연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는 자연신학적 관점에 의해 자연의 긍정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자연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미학적 자연관이 탄생한다. 자연을 미적인 차원의 ‘풍경’으로 감상하게 된 것은, 리터가 주장하듯이, 자연과 인간의 이분화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더불어 발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리터의 테제에 대한 비판과 이것의 한계를 자연신학적 관점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0. 들어가는 말

자연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풍경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이 물음에 대해 리터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자연이 현대적 의미의 미적인 관점에서 관조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현대적 의미의 자연미학은 근대가 고대의 세계상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벌어진 심연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최고의 인식으로 간주되었던 자연(우주)에 대한 관조(테오리아, 이론)적 태도에는 자연을 총체적으로 관찰함으로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근대에 이르자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에 의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이분화되었다. 또 근대 이후 과학적 사고에 의해 객관화된 자연이 인간의 노동의 대상이 되면서 인간이 야생의 자연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와 문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리터에 의하면 자유와 문명의 획득은 다른 면에서 보면 총체적인 것으로서의 자연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에 의해 사물화된 자연을 총체적 자연으로 볼 수 있는 자연관으로 되돌림으로 상실된 자연을 보완하고 생활세계적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미학적 자연관이 등장하였고, 비로소 자연을 ‘풍경’으로서 감상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리터의 테제는 자연을 미적으로 고찰하였던 역사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전히 철학적 관점에 의거해 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대표적으로 롱기누스에 나타나듯이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연에 관한 미적인 관점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리터의 테제는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필자는 리터의 테제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teleologisch 관점, 즉 자연신학적physikotheologisch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즉 야생적 자연에 대한 신학적 변론에서 자연을 미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탄생하였다는 것이 본 논문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서 논문의 전반부(1)에서 리터가 주장하는 테제를 제시하고,

이어서(2)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소개한다. 다음에(3) 자연미학의 성립 과정을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이 때 무엇보다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4) 야생적 자연이 어떻게 신학적·미학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5)으로 자연에 관한 숭고 개념의 발생으로 자연을 미학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 언급된다. 논의 중에 특히 버넷, 보일, 할러, 데니스, 샤프츠베리 그리고 에디슨에 관해 많은 지면이 할애될 것이다.

1. 리터의 테제: 자연미학의 가능근거로서의 자연과 인간의 분리

리터가 1962년에 발표한 『자연풍경 - 현대사회에서 미적인 것의 기능에 대하여』¹⁾는 '자연미'를 주제로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논문은 '풍경' Landschaft으로서의 자연 체험을 위해 요구되는 전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리터에 의하면 자연을 '풍경'으로 보았던 근원은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둔다. 그는 “조화로운 전체 자연의 직관” Schau eines harmonischen Naturganzen²⁾을 의미하는 '테오리아' Theoria³⁾ 개념에 자연을 미학적으로 그리고 생활세계적으로 고찰하였던 그리스의 우주론적 세

1) Ritter, Joachim, “Landschaft. Zur Funktion des Ästhetisch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Subjektivität*, Frankfurt am Main 1974.

2) Seel, Martin, *Eine Ästhetik der Natur*, Frankfurt am Main 1996, 18쪽.

3) 그리스 초기 철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세계 질서로서의 '우주'라는 개념은 이후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헬레니즘 시기에 좀더 근원적인 개념으로서 '전체 자연'을 의미하는 '피지스' physis가 사용된다. 자연을 관조(테오리아)한다는 것은 정신이 자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신적인 것'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연에 대한 '관조'적 태도는 '실천적 행위'로부터의 해방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바로 자연에 관한 이런 태도에 자연을 '풍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Ritter, 같은 책, 144쪽 이하 참조).

계관이 들어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풍경으로서의 자연을 향한 관심에는 “우주에 대한 관조(테오리아)”*θεωρία τοῦ κόσμου*가 전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세계질서’로서의 ‘우주(코스모스)’ 개념은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이후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연(튀지스)’*φύσις*로 대체되는데, 관조(테오리아)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모든 자연의 존재자에 근저에 있는 그리고 자연의 존재자 가운데 드러나는 전체 자연”⁴⁾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튀지스)을 관조(테오리아)한다는 것은 정신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그리고 신적인 것으로서의 세계질서에 관한 직관 (즉 지성적 직관)을 의미하였으며,⁵⁾ 전통적으로 미학적 관조는 지성적 직관의 모델에 따라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미학적으로 파악된 자연은 단순히 다양하게 드러나는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초감각적 의미가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신들의 찬양을 위한 향연 내지 축제적 유희의 영역에 속하는, 초감각적인 것에 관한 관조로서의 테오리아는 신을 향하고 그에 참여하는 직관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테오리아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이 개념을 철학에 적용한다. 즉 철학은 “이론적”(theoretisch) 학문이자 동시에 “신학적”(theologisch)이라 불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⁶⁾ 이런 점에서 테오리아를 지향하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실천적 행위 및 기술의 영역과 구분된다.

리터에 의하면 실천적 목적을 벗어나 자연의 질서를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의 테오리아의 개념 속에는 자연을 미적인 차원에서 풍경으로 고찰하는 태도가 들어있다. 피타고라스가 자연의 질서 가운데 발견한 우주적 하모니나 또는 페트라르카(Petrarca, 1304-1374)가 1335년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물리친 채 자율적으로 전체 자연과 신에 참여하고픈 열

4) Ritter, 같은 책, 144쪽.

5) Aristoteles, *Metaphysik*, Stuttgart(Reclam) 1984, 1026a 참조.

6) Ritter, 같은 책, 145쪽.

망으로 몽방투Mont Ventoux를 등장하였다”⁷⁾는 것은 “산을 산 자체로 관조하고 산정에서의 조망을 향유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는 곧 페트라르카의 등정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테오리아 개념과 정신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⁸⁾는 것이다.

리터에 의하면 근대의 자연미학Naturästhetik은 고대 그리스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소멸하면서 비로소 나타난다. 근대 이후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수용되던 자연에 대한 우주론적이며 보편적인 해석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에 빈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자연이 노동의 대상으로서 사회적·기술적으로 점유되어 자연과의 생활세계적 관계가 소멸하게 되자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풍경’으로서의 자연관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리터에 의하면 자연이 아름다운 것으로 혹은 숭고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총체성 가운데 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자연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관찰자의 시선에 의해 미학적으로 감지될 때 비로소 풍경이 된다. 도시 입구에 있는 들판, 무역선이 들락거리고 교각 건설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의 하천 등은 풍경이 아니다. 이것들이 풍경이 되는 것은 “인간이 실천적인 목적 없이 자연산물에 자유롭게 즐기려는 눈으로 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향에 의해서 비로소 자연은 자신의 얼굴을 바꾼다. 원래 이용대상이던 자연 또는 황무지로서 무가치한 것, 그리고 수 백년 동안 간과되고 관심받지 못하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거부되던 기이한 것들이 장대함, 숭고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된다.”⁹⁾

리터에 의하면, 흄볼트 역시 테오리아 개념과의 연속선 상에서 우주를 파악하였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흄볼트는 ‘우주’로 정향된 ‘이론’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자연을 풍경의 차원에서 미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7) Ritter, 같은 책, 146쪽.

8) Ritter, 같은 책, 같은 면.

9) Ritter, 같은 책, 151쪽.

주장한다.¹⁰⁾ 훔볼트는 “자연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또 경험적 시선에 나타나는 야생적 자연재료를 동시에 이념에 따라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의 장막에 가려있는 자연의 정신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의 숭고한 사명”¹¹⁾이라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자연의 정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연기술을 위한 과학 및 이성과 동격에 있는 “자연에 대한 주시력”Anblick der Natur, 즉 “세계 직관”Weltanschauung이 요된다고 보았다. 리터가 주장하듯이, 테오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훔볼트의 “세계 직관”에 의해 드러난 “내면적 세계는 [...] 감정과 시적으로 조율된 상상력에서 발생한 형상의 반영물”¹²⁾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형이상학적 자연개념을 상실한 자연과학의 객관성에 대항해서 “풍경으로서의 미학적 자연”은 “우주에서의 조화로운 일치”를 시각적 형상 가운데 매개함으로써 나타난 시선의 결과물이다. 훔볼트에 의지해 리터는, 자연을 힘과 재료를 갖고 있는 객체로 간주하는 자연과학과 이것의 기반 위에서 자연을 기술적으로 이용하고 급기야 착취하는 시대에 “시문학과 조형예술은 동일한 자연을 감성적empfindend으로 느끼는 인간과의 연관에서 파악하며, 자연을 미학적으로 드러낸다”¹³⁾고 본다.

이렇듯 근대에 들어서면서 신적인 것으로서의 전체 자연의 정립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 즉 ‘미학적 감정’에 의한 자연에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기계론적 자연관이 전체 자연 가운데 객관화 가능한 것만 도려내어 인식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온 공백을 메울 새로운 자연관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까지 자연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물활론적·목적론적으로 파악되었다. 총체적으로 파악되던 자연이 근대 이후 자연과학에 의해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이행하면서, 자연은 점차 사물화·객체화되었고 그럼으로써 생활세계적으로 관계를 맺던 자

10) A. v. Humboldt, Kosmos, Entwurf einer physischen Erdbeschreibung, 2 Bd, Stuttgart o. J. (Ritter, 같은 책, 152쪽에서 재인용)

11) Ritter, 같은 책, 152쪽.

12) Ritter, 같은 책, 153쪽.

13) Ritter, 같은 책, 154쪽.

연과 인간 사이에 일종의 '공백'(거리)이 생겨났다. 추상적 인식이 갖고 있는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요구된 것, 다시 말해 직접적인 자연체험을 위해 요구된 것이 '미학적 감정'이라는 새로운 '기관'이고, 이 기관의 탄생은 문학 및 조형예술에서 직접적인 자연체험의 객관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다. 바움가르텐이 그의 『미학』 Ästhetica(1750)에서 언급한 '미학적 진리' veritas aesthetica의 필연성도 역시 '논리적·형이상학적 진리' veritas logica가 추구하는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요구된 것이다.¹⁴⁾

지금까지 제시된 논점에서 드러나듯이 리터가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테제는, 우리의 상식은 “시문학과 예술을 그 자체로 그리고 다른 것과 구분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에 리터는 “풍경으로서의 자연이 현대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시문학과 예술이 과학에 의해 자체적으로 파악된 자연을 미학적으로 반복해야 하는지의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학적인 것을 고립시켜 고찰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그리고 풍경으로서의 자연을 [...]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 자연과학에 의해 객관화된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¹⁵⁾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논거가 아래에서 다루어질 쉼러에 대한 사회철학적 반성이다.

리터는 한편으로 과학이 자연을 추상화함으로서 생활세계적인 자연의 '상실'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 과학에 의해 비로소 자유가 '획득'되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자연이 상실되었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획득, 자연의 상실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리터에 의하면 쉼러의 교훈서 「산책」(1795)은 자유의 획득이 자연의 상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증으로 보았다.¹⁶⁾ 리터에 따르면, “쉼러를 보더라도 자연을

14) 리터는 언급된 바움가르텐 뿐 아니라 칸트, 카루스 Carl gustav Carus(1789-1869)도 자연과학의 객관화된 자연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미적으로 매개된 진리의 필연성”을 정초하고 있다고 본다. (Ritter, 같은 책, 156쪽 이하 참조)

15) Ritter, 같은 책, 158쪽.

객체화하는 사물화Verdinglichung와 인간을 원래부터 둘러싸고 있던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분리Trennung는 원천적으로 성스러웠던 존재자로부터의 타락이나 상실로 간주되지 않는다”¹⁷⁾는 것이다. 자연의 힘으로부터의 해방, 즉 자연으로부터의 거리두기 현상으로서의 도시화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자유가 이렇게 확립되어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연을 ‘풍경’으로 감상할 ‘기관’ (즉 감성)을 지니게 된다.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직업 활동’과 ‘학문’은 인간을 ‘자연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고, 그럼으로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에 예속시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야생의 자연이 이용되고 지배되어서야 비로소 인간의 자유가 확보되었다는 것이 쉴러의 입장이며, 리터 역시 원초적 자연으로부터의 ‘분리’, 즉 거리두기는 자유의 가능성을 위해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드브레 역시 리터와 마찬가지로 풍경의 발견을 위해 자연의 힘으로부터 거리두기와 자연력의 제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화만이 자연의 풍광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어디에나 있지만 풍경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도시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다. 노동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지독하게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빈곤과 힘겨운 노동만을 환기시킬 뿐이다. 이것은 세잔느가 프로방스 지방의 농부는 시장에 감자를 팔러 짐수레를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썩 빅투아루 산을 결코 아름답게 본적이 없다는 진술과 맥이 통한다. 그들은 세잔느의 시

16) 줄고, 「문화과정으로서의 자연미」, in: 『철학탐구』 제1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2, 166쪽 이하.

17) Ritter, 같은 책, 160쪽. 리터의 이러한 쉐러 독법은 프리드리히 쉐러(안인희 옮김),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1995, 청하, 제 25번째 편지에 잘 드러난다. “인간이 자신의 최초의 물리적 상태에서 감각세계를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한, 즉 오직 느끼기만 하는 한에는 그는 감각세계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 자신이 세계이므로 그에게는 아직 세계가 없습니다. 그가 미적 상태에서 세계를 자신의 바깥에 세워야만, 곧 그가 세계를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그는 세계와 자신의 존재를 구별하고, 비로소 하나의 세계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세계와 하나이기를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142쪽).

선과 같이 자연을 하나의 풍경으로 감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풍경이란 자연을 먼발치서 구경거리로 바라보는 도시인들이나 또는 단지 스치고 지나갈 뿐인 여행객의 눈을 위해서나 가능한 장르인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이유로 리터는 “풍경으로서의 자연은 현대사회에서 오직 자유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¹⁹⁾는 테제를 정당화한다. 이 테제에는 사회철학적 관점과 철학사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회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리터의 테제는, 18세기 후반에 현대사회가 이분화 되면서 비로소 미적인 자연으로서 풍경의 체험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주장한다. 철학사적인 관점에서 리터의 테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종교와 철학 사이의 통일이 붕괴된 이후에 비로소 자연에 관한 총체적 체험으로서의 미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관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주장한다.

자연을 미학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리터가 제시한 요소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풍경과 감정 사이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감성 풍부한 주체’와 2. 외적 자연에 관한 ‘미학적 시선’, 즉 실용적 목적 없이 “향유하는 자율적 직관”²⁰⁾이 요구된다. 리터는 이 요소가 고대 그리스의 ‘테오리아’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후에 칸트 미학의 중심 개념인 ‘목적 없는 합목적성’도 동일한 의미선상에 있다고 본다. 3. 근대의 미적 체험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모든 부분적 관심을 벗어난 ‘전체로서의 자연’이다. ‘향유하는 자율적 직관’을 지닌 감상자의 시선은 자연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며, 이러한 시선에 의해서 자연은 비로소 ‘풍경’이 된다.²¹⁾ 요컨대 리터가 제시한 근대적 의미의 미적 자연체험을 위해 3가지 필요

18) 드브레, 레지스(정진국 옮김), 『이미지의 삶과 죽음』, 시각과 언어, 1992, 231쪽 이하 참조

19) Ritter, 같은 책, 162쪽.

20) Ritter, 같은 책, 151쪽. 촌락에 사는 거주민에게 “산은 땀감이며, 땅은 농토이고, 물은 수산물의 근원”으로 간주되듯이 미학적 기관은 자연을 실용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관찰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다 (Ritter, 같은 책, 147쪽).

21) Ritter, 같은 책, 150쪽 이하.

조건을 정리하자면, 감성적empfindungsvoll인 관찰자, 실천적 목적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연의 총체성에 대한 지각이다. 이렇듯 리터는 세 가지 요건에 기반을 둔, 자연의 관조를 위한 기관은 감성적인 동시에 초감성적이며, 자연을 풍경으로 보려는 미적 구성활동에 의해 비로소 자연학에서 형이상학으로의 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리터의 테제에 대한 비판

리터의 풍경의 성립을 위한 이론은 근대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리터는 쉴러, 헤겔 그리고 훔볼트로 이어지는 전통을 역사철학적으로 구성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에서 결과한 공백을 보완하는데서 미학적 자연체험의 기능을 설명한다. 리터의 이론은 풍경체험의 조건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전제하는데, 이분화는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성립을 위한 ‘자유’의 조건으로서 필연적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 일종의 ‘상실’로 파악된다. 난폭한 자연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고, 과학은 자연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자연의 지배로 인해 인간과 생활세계적 자연과의 거리두기에서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관’이 ‘미학적 감정’이며, 이 기관에 의해 비로소 자연을 ‘풍경’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리터의 테제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듯이 풍경으로서의 자연관이 18세기 후반에 자연과 인간 사이에 거리두기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자연을 풍경으로 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귀족들은 이미 17세기에 이탈리아 여행 중에 이탈리아 정원의 전원적인 아름다움을 보았고, 알프스에서도 산의 공포스러운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체험하였다. 또 르네상스의 풍경화는 자연을 이미 풍경으로 전제하였다.²²⁾ 페트라르카의 몽방투의 등정

22) Piepmeier, Rainer, *Das Ende der ästhetischen Kategorie 'Landschaft'*,

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호기심의 시작과 의미심장한 자연체험의 시작”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²³⁾ 페트라르카가 몽방투의 정상에서 펼쳐 읽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구절은 자연을 당시에 숭고한 대상으로 지각하였다는 점을 - 물론 숭고의 지각을 세속으로부터 기독교적 전향을 가능케하는 경이의 체험으로 간주하지만 - 잘 드러내고 있다.²⁴⁾

롱기누스²⁵⁾도 자연의 숭고 체험과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사한 주장한다. 그는 『숭고론』에서, 인간은 저열한 동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자연의 웅대함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자연은 인간의 영혼에 자연의 웅대함을 사랑하도록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심어 놓았고, 인간 자신 보다 더 성스러운 것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우주는 인간 이해력의 집요한 사색이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우주는 물질적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며, 그리기에 무한한 공간으로의 여행은 기쁨을 준다”²⁶⁾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응하는 조그만 자연을 칭송하지 않고, 나일강이나 도나우강, 그리고 용암을 통해내는 에트나의 화산에 감동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롱기누스는 인간 본성에서 외부 자연을 즐기고 이것으로부터 감동 받을 수 있는 내면적 위대성을 발견함으로써 이후 칸트의 숭고미학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았다.²⁷⁾ 롱기누스의 『숭고론』에도 자연풍경의 체험을

Westfälische Forschungen 30, 1980, 8-46쪽,

23) Jauß, Hans Robert, *Ästhetische Erfahrung und literaturische Hermeneutik*, Frankfurt am Main 1982, 140쪽.

24) 페트라르카가 읽었다는 『고백록』(10장)의 구절은, “사람들은 그리로 올라가서 산의 높이에 경탄하였다. 그리고 대양의 무한한 밀물과 저곳으로 흐르는 물줄기, 대양의 번두리 그리고 별들의 순환운동에 경탄해 마지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들 자체를 존경하지는 않는다.”

25) 롱기누스에 관해 자세한 것은,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48쪽 이하 참조.

26) Longinus, "Über das Erhabne", in: *Ästhetik der Antike*, hg. v. Joachim Krüger, Berlin und Weimar 1988, 338쪽.

27) Monk, Samuel, *The Sublime - A Study of Critical Theories in XVIII Century*

위해서 리터가 자신의 『자연풍경』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세 가지 특징적 계기, 즉 1. 영혼과 외적 자연 사이의 조화, 2. 목적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3. 초감성적인 것의 파악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근대 이전에 개발되지 않은 자연이 야생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풍경으로 미적으로 감지되지 않았다고 상정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더군다나 ‘철학적’으로 정초된 리터의 이론은 우선 풍경 개념의 발생적 측면들 보다 기능적인 면²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정향된 물음을 도외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리터의 이론은 근대의 풍경으로서의 자연체험에 대한 연대기순의 정확한 언급은 아니다. 자연에 관한 기계론적 이해 때문에 생활세계적 자연체험이 상실되었고,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 ‘정신’(헤겔적 의미의)이 새로운 ‘기관’을 발전시켰다는 리터의 테제는 자연미학의 발생론적인 설명을 결하고 있다.

물론 리터 역시 근대 이전에 이미 자연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제시된 설명이 없으며,²⁹⁾ 더군다나 그의 이론은 그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다. 리터와는 달리 이미 자연을 유용성, 무용성에 따라 아름답게 혹은 추하게 표상하는 사유방식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야생의 자연은 무용하며, 기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위험한 것, 즉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그래서 관조적인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더군다나 야생의 자연이 지니고 있는 외적인 형태는 미의 전통적 표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괴테는 1823년 솟아오른 알프스에 대하여 “아름다운 평야를 덮고 있는 울퉁불퉁한 능선들, 불쾌한 암벽들, 모양새 없는 화강암 덩어리로 덮혀있는 북쪽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어찌 한 인간이 알프스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면서 오래전에 계획했던 “스위스로의 불필요한 여행”³⁰⁾에 관

England, An Arbor Paperbacks 1960, 18쪽 이하 참조

28) 여기서 “기능적인 면”이란 사물화되고 추상화된 근대 이후 자연인식의 보완으로서의 미학의 기능을 의미한다.

29) Ritter, 같은 책, 151쪽.

30) Goethe, Wolfgang von, "An Nees von Esenbeck", 31,10.1823, *Goethes Werke*,

해 불평을 토로하였던 것이다. 괴테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고 개간된 평원을 아름답게 평가하고 알프스의 추함을 비난하였다는 것은 그의 미적 지각방식이 여전히 과거의 유무용성을 따르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용한 자연은 아름답게 (유용성=미), 그리고 무용한 자연은 추한 것 (무용성=추)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자연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리터에게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리터는 자연에 대한 '무관심적' 접근만이 자연미학을 가능케하는 요소로 간주하였고, 외적인 자연이 지닌 유용성, 무용성 등은 자연을 풍경으로, 즉 미학적으로 보기위한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었다. 그의 이론의 이런 한계는 자연을 미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자연지배에 의해 - 쉴러의 「산책」에서처럼 - 극복되었다고 간주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의 지반 위에서만 자유가 가능하고, 자유의 조건 아래서만”³¹⁾ 풍경과 인간 사이에 조화가 성립한다는 리터의 관점은 자연미학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오히려 수백년 간 지속되었던 과정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리터가 주장하듯이 ‘총체적인 것’으로서의 자연관이 18세기 후반 별안간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감성적 주관’이 별안간 역사의 계획에 들어선 것도 아니다. 자연이 질료적으로 객체로 사물화되고 지배되기 훨씬 이전부터 코페르니쿠스적 자연과학에 의한 자연관의 위기가 인지되었고, 그래서 기독교-플라톤적으로 이해된 우주의 통일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연을 신학적·목적론적teleologisch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그것이 곧 자연신학적physikotheologisch 이론이었다. 이미 근대 초기에 자연신학에 의지해 감각적 체험을 재평가하고 감각적 경험의 초월 가능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자연을 풍경으로 지각하려는 가능성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리터 테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본 논문의 테제는, 미학적 자연체험은 이미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다시 말해 우주를 통일적으로

Weimarer Ausgabe, Bd. 37, 258쪽.

31) Ritter, 같은 책, 162쪽.

간주하였던 고전적 표상의 지반 위에서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학적 자연개념은 피타고라스-플라톤-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드러나듯이 자연적 사물의 세계를 조화로운 전체로 파악하였던 형이상학적 자연개념 가운데 이미 내포되었던 것이다. 미학적 자연체험은 현재 시민사회가 딛고 서있는 ‘이분화 구조’Entzweigungsstruktur 위에서 자연에 대한 추상적 이해의 결손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³²⁾

3. 자연미학의 성립 기반으로서 자연신학

풍경으로서의 근대적 자연체험을 위해 오랫동안 방해물이 되었기에 우선 극복되고 논의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외적 자연에 대하여 감탄을 금지했던 기독교적 태도는 극복의 대상이었고, 둘째, 어떤 조건 하에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야생의 자연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감지될 수 있으며, 미학적으로 풍경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한편으로 “인간의 지위를 낮추는”의 메타포이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지위를 승격시킨”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³³⁾ 이러한 독법이 곧 리터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읽는 방법이었지만, 이는 지적하였듯이 풍경의 정초를 위해 일면적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풍경의 정초를 위해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읽는 제3의 독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자연신학적 관점에 따라 자연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 제3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실제로 참여하였던 과학자들 - 코페르니쿠스에서 뉴톤에 이르기까지 - 뿐만 아니라, 형이상

32) 리터에 반대하는 이론은 예컨대 Rolf Peter Sieferle, "Höfische und bürgerliche Natur", in Hermann Lübke - Elisabeth Störker (Hg.), *Ökologische Probleme im kulturellen Wandel*, München 1986, 93-99쪽 참조.

33) Blumenberg, Hans, *Die kopernikanische Wende*, Frankfurt am Main 1965, 122쪽 이하.

학적이며 우주론적 관점에서 출발하면서도 플라톤·기독교적인 전승 가운데 머물렀던 학자와 문예인들 이었다. 그들은 자연과학과 신학 사이에 그리고 이성과 신앙 사이에 벌어진 심연을 메우려 하였다. 그들이 취한 방법은 한편으로 이성론적인 방법으로써, 물리적 자연의 무한성의 개념을 넘어서는 창조주의 무한성의 개념에 도달하거나, 다른 한편 자연의 관찰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재평가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반성적 사유는 특히 야생적 자연을 관조할 때 활동하였다.

오를 수 없는 절벽이나 가파른 산정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응시할 때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자연스런 두려움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공포를 야기한다. 루터는 자연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동시에 타락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연에 관하여 비관주의적이다. 버넷 Thomas Burnet은 『지구에 관한 종교적 이론』(1681)에서 루터가 주장한 타락설의 관점에서 - 예컨대 노아의 홍수를 지구 대재앙으로 해석한다 - 우주 진화론을 전개한다. 원래 평평하고 고르게 완전히 기하학적으로 신에 의해 창조된 지구는 파괴되는 과정에서 높은 산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파괴된 세계의 잔해로서의 자연을 그리고 신의 징벌에 의해 균형과 비례를 상실한 기괴한 자연을 견디어야 했다. 이것이 우주 진화론적인 사변의 출발점이다. 왕립 교회의 목사로서 버넷은 알프스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였다. 고전적인 미의 이상에 현혹되었고 그리고 조물주야 말로 선과 원으로 치장하는 르네상스 건축가라고 생각하던 버넷에게 균형을 상실한 산악은 추악한 모습으로 비쳤다. 산이야 말로 “자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혼돈의 가장 대표적 본보기”³⁴⁾였다. 왜냐하면 비례, 척도, 균형의 전통 미학에는 다양성, 비규칙성, 대립성 그리고 무한성을 특징으로 한 거친 자연을 위한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지적된 것처럼 자연의 타락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야생적 자연을 거부하는데, 이들에게서 야생적 자연의 형이상학적·신학적 거부는 미학적

34) Burnet, Thomas, *The Sacred Theory of the Earth* (1691), London 1965, 53쪽 이하, 113, 115쪽.

거부와 상호 결합되어 있으며, 둘은 상대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자연미의 발견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형이상학적·신학적 이유로 야생의 자연을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편견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자연에 관한 신학’, 즉 자연신학이 그것에 기여한다.

영국에서 자연신학은 17세기 중반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 사이에 정신적 운동으로 시작된다. 자연신학은 두 가지 상대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첫째, 이미 언급된 것처럼 타락설로서 자연신학은 기독교적 세계거부의 전통을 발전시키려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비관주의적인 성향에 대항한다. 앞서 지적된 굿맨의 저서는 즉시 ‘설계’Design나 혹은 ‘타락’Decay이나로 양분되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설계는 현명하고 합목적적인 세계건립의 근거에 있는 신의 창조계획으로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사물을 자세히 고찰하면 자연이 신의 디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 테제의 추종자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그대로의 지형학적 형상대로 신의 손으로 창조되었으며, 타락에 의해 흠물스럽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헤이크윌George Hakewill은 1627년 『변호 혹은 신의 섭리와 위력에 관한 선언』³⁵⁾에서 제일 처음 굿맨에 대항하였다. 둘째, 자연신학자들은 창조계획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에게 대항하였다. 무신론자들은 원자론을 옹호하고, 물질이 지닌 고유한 동력을 설정하면서, 이 세계는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연신학자들은 기계론적 세계관 (즉 자연과학)에 의해 전개되는 이분화 경향을 저지하려 하였다. 플라톤·기독교적으로 이해된 고대의 통일체적 우주관의 구출을 위해 조화를 목표로 한 자연신학의 프로그램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가져다준 쇼크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자연신학적 사유의 전통은 르네상스 철학에 의해 새로이 수용된 플라

35) 헤이크윌에 대한 언급은 Clarence J. Glacken, *Trace on the Rhodian Shore. Nature and Culture in Western Thought from Ancient Times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Berkeley 1967, 383-389쪽.

톤의 『티마이오스』와 키케로의 『신에 관하여』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15세기에 피렌체에 건립된 플라톤 아카데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에 의지해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계시론의 조화를 꾀하려 한다. 키케로의 『신에 관하여』는 어느 만큼은 자연신학을 대표하는 원조격의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부분은 합목적^{zweckmäßig}적이거나 아름다울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 졌지만, 그는 독자들이 “신적 예견의 산물인 자연의 여러 조직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고찰할 것”³⁶⁾을 요구하였다. 자연신학적인 신존재 증명은 목적론적 증명의 바탕 위에서 오랜 역사를 지녔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하여, 초기 스콜라 철학을 거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되었다. 건축가로서의 신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생각될 수 없는 신의 작품으로서의 자연에 관한 표상이나, 세계 기계라는 생각, 신을 세계 건립의 최상의 건축가로 간주하는 생각들은 모두 자연신학적인 동기를 지닌 전통에 속한다. 현대 자연과학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천문학자들의 저서들도 자연신학적인 사고방식과 연결된다.

자연신학의 기획은 새로운 자연과학적 지식을 전승된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 가운데 표명되었다. 자연신학자들은 자연과학자이며 동시에 신학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은 새로운 과학과 전승된 세계관의 조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신과학’의 실험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주 조직의 합목적성과 인간을 위한 유용성, 그리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무한성으로부터 목적론적^{teleologisch}으로 창조자의 실존과 창조자가 지닌 술어를 추론하기 위해 자연신학자들은 미시우주와 거시우주의 탐구에 열중하였다. 그들은 지혜, 선함, 전능이라는 신에 관한 술어가 우주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사물로부터 그런 술어를 발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 있는 ‘계시의 책’(성서)과 ‘자연의 책’으로 이어지는데, 모든 피조물은 신의

36) Cicero, *Vom Wesen der Götter*, II, hg. v. W. Gerlach und. K. Bayer, München 1978, 256쪽 이하.

손에 의해 쓰인 활자이기 때문에 ‘자연의 책’은 성서와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인식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자연신학자들은 두 책이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고 본 최초의 인물들이다. 이제 학자들은 ‘자연의 책’을 읽기 위해서 서재에서 빠져나와 세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빈손이 아니라 망원경, 현미경, 온도계, 기압계, 식물 채집함, 해부도를 들고 작업장으로 갔다. 새로운 측량도구에 의해 창조계획이 묘사되고, 회의론자에게 신의 지혜와 합목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자연신학적 운동은 학문적 인식의 형성과 대중화를 위해, 그리고 마술적으로 규정된 근대 이전의 세계를 탈마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자연신학적 운동은 계몽주의와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과학사적으로 보면 자연신학적 관점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탐구 관점을 위한 모든 전제조건을 다 충족시켰다. 요컨대 기독교적 세계상과 그리고 특히 창조신앙은 자연신학적 패러다임에 의해 거의 의식되지 못한 채 근대로 흘러들어 왔다. 18세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자연과 이성이 점차적으로 신의 자리를 차지하였을 지라도, 자연신학적 개념들은 형이상학적 지위를 넘겨받았으며, 목적론적인 사유는 비록 세속화하기는 하였을지라도 다윈에 의해 폐기되기 전까지 진가를 발휘하였다.

4. 야생적 자연의 신학적·미학적 정당화

자연신학자들은 낙관주의적이지만 변신론Theodizee의 문제, 즉 이 세계의 악이 어떻게 자비롭고 선한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의 표상과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거친 자연, 공포스러운 병벽, 사막, 해일, 화산, 지진, 맹수, 독충, 잡초 등이 선한 존재로서의 신의 표상과 어울릴 수 있는지의 물음이 제기되었다. 자연신학자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소위 ‘부정적인 것의 긍정화’Positivierung des

Negativen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 세계의 모든 악은 기능적인 연결망 전체에서 보자면 필연적이며,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만 악이다. 산, 바다, 황야, 맹수 등 모든 것들은 창조의 가시적인 기능을 위해서 자연사적으로 의미를 지닌다”³⁷⁾는 것이다.

변신론의 주장들은 자연신학적인 신존재증명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책’은 감각만으로는 읽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의해 확대된 감각에 의해서도 읽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라는 칸트의 명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념이 없다면 경험적 직관의 야생적 재료를 지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정신”을 파악할 수 없다.³⁸⁾ 자연신학자들이 신에 관하여 갖고 있는 근본이념은 예컨대 전능potentia, 섭리providentia 그리고 지혜sapientia의 술어를 지닌 신학적 개념이다. 외적인 전체 자연은 감각에 의해 드러나는 신의 계시로 이해되고, 기능적인 자연의 과정은 인간의 유용을 위한 신의 질서로 해석되었다. 물론 자연사물이 지닌 목적 지향성 때문에 목적으로서의 신을 도출해 내고, 다시 이 신을 전체로 세계의 합목적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자연신학적 증명은 순환논법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연신학자들은 외적 자연을 정밀하게 관찰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와 신에 부가되는 술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 논리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연신학적 증명은 항상 자연학에서 형이상학으로 비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론적 원리는 자연신학적 변신론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 가운데 특히 산의 유용성에 관한 논증은 고전적인 주제이다. 16세기 중엽에 게스너Conard Gesner는 자연의 창조자로서의 신과 숲, 약초 등을 제공하는 산의 풍요로움을 칭송하였다. 1592년 코임브라 예수회에서 출간된 한 논문에서 지구가 산이 없이 창조되었는

37) Siefert, Rolf Peter, “Entstehung und Zerstörung der Landschaft”, in: hg. v. M. Smuda, *Landschaft*, Frankfurt am Main 1986, 241쪽.

38) Ritter, 같은 책, 152쪽.

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을 때, 산은 아름답고 유용하기 때문에 지구는 산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³⁹⁾ 자연신학적으로 산악의 예찬론은 극복되어야 할 저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예컨대 공포를 야기하는 험준한 산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에너지원이며, 천연 요양원이나 미네랄을 제공하기도 하며, 바람막이 방벽이거나 요새의 제공처로 해석되었다. 베어트란트Elie Bertrand가 1752년 출간한 『산의 유용성에 대한 에세이』에서 버넷에게 반론을 제기하였다. 대부분 두터운 빙토, 눈 사태, 계곡의 빙하 등으로 인한 “스위스의 산악지역”의 “위험성”과 “결점”에 관해 탄식하였지만 베어트란트는 그런 비난과 대결한다. 그의 과학적인 주장에 따르면, 이런 자연현상은 “참된 의도”에 따라 본다면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필요할 뿐 아니라, 사물의 상호관계가 지닌 의도에 따라 본다면 대부분 유용하다”는 것이다.⁴⁰⁾

할러Albrecht von Haller는 『알프스』(1729)라는 시에서 “산의 얼음과 가파른 암벽은 유용성을 위해서, 토지에 물을 대기 위해 거기 있다”⁴¹⁾고 보았다. 주민의 이상적 삶의 배경을 묘사한 알프스에 대한 할러의 묘사는 자연과학적인 관찰방식에 의존하지만, “지성적인 눈”은 자연의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는다. 또 할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실용적인 유용성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산의 도덕적 유용성이다. 왜냐하면 산의 척박한 환경은 주민들의 도덕적 타락을 - 도시와 평원에 거주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 막기 때문이다.

자연 예찬 시인인 브로케스Barthold Heinrich Brockes는 『산』(1738)이라는 시에서 목적론적인 유용성뿐 아니라 야생적 자연 앞에서 관찰자가 갖게 되는 정신활동을 표현하였다. 즉 우리는 거친 자연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숭고 이론에서 중요하게 취

39) Groh, Ruth und Dieter, "Von den schrecklichen zu den erhabenen Bergen, Zur Entstehung ästhetischen Naturerfahrung", in: *Vom Wandel neuzeitlichen Naturbegriffs*, hg. v. H. D. Weber, Konstanz 1989, 72쪽에서 재인용.

40) ibid.

41) Haller, Albrecht von, *Die Alpen*, hg. v. H. T. Betteridge, Berlin 1959, 20쪽.

급되는 모호한 감정, 즉 “쾌와 혼합된 공포”의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산의 정상에 공포스럽고 기이하게 보여도, 그것들은 쓸모 있으니, 그 크기에 있어 아름답다.” 산이 “그 크기에 있어 아름답다”는 말은 결국 숭고의 개념을 의미하며, 숭고한 자연에 우리는 “쾌와 혼합된 공포”의 감정으로써 반응한다.⁴²⁾ 그의 자연예찬의 시는 비록 아름다움과 유용함의 근원인 초월적 원천에 대한 숙고를 목표로하지만, 이미 미학적인 감각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

할러가 산의 유용성의 측면에서 자연신학적으로 산을 정당화하였다면 브로케스는 숭고의 감정 위에서 야생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감정은 우선 무엇보다 지금까지 추하고 불쾌한 것으로 여겨졌던 현상들과 친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였고, 언어는 새로운 감정들을 표현하는 법을 익혀야 했다.

감정의 표현은 자연신학이 코페르니쿠스적 충격과 천문학의 발견에 응답하면서 비로소 가능하였다. 디크만이 지적하듯이 “목적론적 그리고 자연신학적 논증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충격’에서 벗어나게끔 하며, 창조자와 불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계 사이에 놓인 심연에 다리를 놓았다. 창조자의 조력에 의해서 우리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무한한 공간의 침묵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해 해답을 구할 수 있다.”⁴³⁾ 코페르니쿠스가 성서에 의해 부여된 지구의 중심적인 지위를 빼앗아 버리고 다른 행성과 같은 단순한 하나의 행성으로 만들어 버린 이후에, 망원경을 통해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갈릴레이의 관찰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새로운 현실에 대한 자연신학의 대답은 우주를 신학적 해석으로 채워 넣는 것이었다. 즉 무한한 세계 전체 앞에서 인간이 갖는 놀라움 - 예컨대 “우주적 상실감” 그리고 “우주적 허무주

42) Brockes, Heinrich Barthold, Aus der vornehmsten Gedichte aus dem “Irdischen Vergnügen in Gott”, hg. v. Dietrich Bode, Stuttgart 1965, 477쪽.

43) Dieckmann, Herbert, “Religiöse und metaphysische Elemente im Denken der Aufklärung”, in: *Wort und Text Festschrift f. R. Schalk*, hg. v. H. Meier u.a., Frankfurt am Main 1963, 333-354쪽.

의”⁴⁴⁾ 등 - 을 신에 관한 표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충격’의 해결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자연신학자 중에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인 모어Henry More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천문학과 철학적 신학,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종합을 추구하였고, 『형이상학 편람서』(1671)에서 무한한 공간이 신의 무한한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⁴⁵⁾ 신의 속성을 공간의 속성과 동일시하면서 비로소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매개를 가능하게 하는 미학적 범주가 탄생하는데, 그 속성이 곧 무한성의 개념이다. 요컨대 “무한성의 미학”⁴⁶⁾이 자연에 관한 숭고미학의 근원인 것이다.

혁명적 세계상에 대한 모어의 반응은 미학적 판단의 방식이다. 그는 “무질서 가운데 기쁨”⁴⁷⁾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하여 미학적 규준이 규칙적·전형적·항상적인 것에서 비규칙적·개별적·변화 가능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제 모어는 접근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산과 암반에 감동할 수 있었고, 야생적 자연이 말을 걸어올 때 “즐거운 공포와 오싹한” 감정으로 응답하였다. 그는 마음과 눈으로 산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었고, 창조의 일부분으로서의 산에 사랑, 공포 그리고 헌신을 보냈다. 요컨대 그는 이제 야생의 자연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가운데 자연풍경을 미학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모어는 부정적 쾌감이 지닌 모호한 감정

44) Phillip, 같은 책, 78쪽 이하.

45) More, Henry, *Enchiridion Metaphysicum*, engl. Übers. in: F. I. Mackinnon (Hg.), *Philosophical Writings of H. M.*, New York 1925, 183-229쪽. 공간과 신과의 연관은 “전체”를 포괄하며 “조화를 목표로 하는” 자연개념의 바탕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정통 기독교에 반하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공간에 신의 무한성을 부가한다는 것은 우주의 신성을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의 표상방식이며, 이에 반해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는 성서적인 자연관에 의하면 자연은 신의 거울(즉 가상)이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은 신의 속성을 지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문제삼지 않았다.(Zimmermann, Jörg, “Zur Geschichte des ästhetischen Naturbegriffs”, in: *Das Naturbild des Menschen*, München 1982, 119쪽 참조).

46) Nicolson, Marjorie Hope, *Mountain Gloom and Mountain Glory - The Development of the Aesthetics of the Infinite*, Seattle, 1997, XII쪽.

47) Nicolson, 같은 책, 133쪽.

을, 즉 상상력을 초월하는 공간과 시간의 무한성에 관한 초감성적 표상을 “즐거운 떨림(*pleasant tremble*)”⁴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신과 동일시되는 초감성적인 것은 예전부터 실제 숭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초감성적인 것은 이것이 지닌 형이상학적 크기에 의해서 정신을 ‘억압’하면서도 동시에 ‘고양’시킨다. 초감성적인 것에서 획득된 체험은 최초로 모어에 의해서 외적인 야생적 자연에 전이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모어는 칸트의 숭고론을 예견하는 미학이론을 전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⁴⁹⁾ 이제야 장엄한 자연대상의 관조는 형이상학적 무한성에 대한 사유와 연계된다. 모어의 추종자들은 모어의 안내대로 새로운 길을 걸었고, 더불어 숭고에 관한 표상도 점진적으로 명확한 형상을 획득하였다. 물론 아직도 무한성에 관한 미학이 일반화된 것만은 아니지만 말이다.

자연신학자들 사이에 산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추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짐으로서 미학적 관념의 변화에 저항이 있었다. 버넷(Thomas Burnet)은 『지구의 성스러운 이론』(1681)에서 전체 자연 가운데 산을 무질서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면서 현재의 지구는 “파괴와 쓰레기 더미처럼 보인다”⁵⁰⁾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의 긍정적인 의미를 실용적인 근거에서 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던 벤틀리(Richard Bentley)는 숭고 미학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장애를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제거한다. 즉 “우리에 의해 어떤 형상이 규칙적이라고 불리어 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 형상이 비규칙적인 형상보다 더욱 아름답다고 불릴 보편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벤틀리는 고전주의적 미의 이상을 주관주의적 논증에 의해 간단히 거부한다. 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대상은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 사물 자체는 비정상이 아니다.”⁵¹⁾ 말하자면 미학적 판단을 규정하는 것은 문화 역사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8) Groh, 같은 책, 76쪽에서 재인용.

49) Groh, 같은 책, 같은 면.

50) Nicolson, 같은 책, 260쪽에서 재인용.

51) Nicolson, 같은 책, 262쪽 이하에서 재인용.

숭고 미학의 성립에 영국 귀족들의 알프스 여행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버넷 역시 높은 산이 주는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알프스는 거대한 폐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장려한 모습이라고 보았다. 미학적으로 알프스의 추한 모습에 대하여, 그는 『지구의 성스러운 이론』에서 변신론을 전개한다. 당시에 자연의 숭고한 대상에 대한 반응은 이중적인 모습을 띠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중성은 버넷에서 특히 인상적으로 나타났다. 즉 고전주의적 미의 규칙에 의하면 미학적으로 이러한 비정형의 자연은 거부될 수밖에 없으나, 하지만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서 마음은 감각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버넷에서 드러나는 이런 이중성은 숭고에 관한 칸트의 이론을 선취한 측면이 있다. “자연의 거대한 대상들은 [...] 우리의 파악능력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초월적인 것으로 채우고 억누르며, 망연자실Stupor과 찬탄Admiration에서 오는 기쁨으로 채운다.”⁵²⁾ 높은 산과 광대한 바다, 별이 가득한 무한한 하늘 등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유사한 감흥을 일으키며 숭고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킨다. 그러한 풍경을 볼 때 논리적 사유기능의 작용 없이 ‘저절로’ 신에 관한 이념과 위엄이 우리의 정신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모든’ 것은 ‘무한성’의 표상과 결합되며, 마음에 양가 감정, 즉 ‘경직’과 동시에 ‘감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의 숭고한 대상을 초감성적인 것에 관한 이념의 표현으로 파악한다. 버넷의 “망연자실과 찬탄”은 모어가 20년 전에 ‘즐거운 공포’pleasing horror라고 언급한 동일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버넷은 이러한 풍경에 ‘아름다움’이라는 술어를 거부하며, 오히려 그것을 ‘크고 장대한’이란 술어를 사용함으로써 숭고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52) Groh, 같은 책, 77쪽에서 재인용.

5. 자연에 관한 숭고의 탄생

숭고를 위해서 요구되는 새로운 감수성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에 미학적 딜레마는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비로소 테니스, 샤프츠베리 그리고 애디슨이 17세기 전환기에 숭고 미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서야 문제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테니스 John Dennis는 - 버넷의 『지구의 성스러운 이론』의 출간 7년 후 이탈리아 여행 중 알프스를 거쳐 토리노에 도착한 체험기를 생생한 기억으로 편지에 남겼다. 버넷의 영향을 받은 시선으로 테니스는 암벽지역에서 “무서운, 섬뜩한, 소름끼치는 항폐함”, 극도로 불규칙하고 모습을 갖추지 않은 형상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태를 갖추지 않은 야생적 자연에서 만족감, 황홀감을 느낀다. 그가 여행에서 얻은 중요한 체험은 원래 아름답지 않은 자연에 감동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선다. 험준한 암벽의 심연의 골짜기를 통과한 체험에 의해 전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은 일상적이 아닌 감성이 발생하였다. 즉 “이런 모든 자연 경관에 대한 감각은 나의 내부에 다른 감정, 말하자면 기쁨에 찬 공포 delightful Horror, 두려운 기쁨 terrible Joy을 자아내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한없이 만족스러웠고, 떨고 있었다.”⁵³⁾

‘공포’와 결합된 ‘쾌감’이라는 모순적 감정은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테니스의 미학에서 출구를 발견한다. 오랫동안 합리주의적인 미의 개념을 고수하였던 그였지만 전통적인 미의 개념을 벗어나는 광폭한 체험을 이론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그는 감정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그는 미학적 체험의 과정을 어느 정도 원인-결과 관점에서 정돈하면서 “열정적 감정”과 “일상적 감정”을 서로 구분하였다.⁵⁴⁾ 후자의 감정은 감동, 놀라움 혹은 기쁨이든 간에 어떠한 개념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대상에 의해

53) Dennis, John, The Critical Works of John Dennis, hg. v. E. N. Hooker, Baltimore 1943, Bd. 2, 280-282쪽.

54) Dennis, 같은 책, Bd. 1, 205, 235쪽.

서 야기된다. 이에 반해 전자의 감정은 “공포스러운 기쁨”과 같이 모순적 감정으로서, 그 원인은 우리의 파악력과 상상력을 넘어서 있다.⁵⁵⁾ 그래서 데니스는 “일상적 감정의 원인 뿐 아니라 열정적 감정의 원인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원인이 익숙하지 않다는데 있다”⁵⁶⁾고 보았다.

나중에 데니스는 그렇게 구분되는 감정에 각각 두 부류의 대상을 적용한다. “일상적 감정”에는 아름다움dulce의 개념에 속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열정적 감정”에는 숭고pulchrum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을 귀속시켰다. 이렇게 하여 데니스는 미학이론에서 최초로 아름다움의 개념과 함께 숭고 개념을 정립한다. 그는 숭고한 대상의 서열을 매겼는데, 최상위에 신이 있고, 그 아래 신적인 것의 현현으로서 세계전체와 천체, 그 다음의 단계로 지상계에 속하는 바다, 폭풍, 산이 있다. 신의 표상은 “가장 위대하고 격렬한 감정”을 야기한다. 그리고 외적 자연의 대상이 민감한 마음에 그러한 표상을 강렬하게 불러일으킬수록 그에 상응하는 감정은 더욱 강렬해 진다. 역으로 감정의 강렬한 정도는 숭고성의 척도이며, 어떤 대상이 강렬한 감정을 야기함에 따라 초감성적인 것에 관한 표상을 매개할 수 있는지의 자격이 결정된다.⁵⁷⁾

대화체로 쓰여진 『도덕주의자』(1709)에서 샤프츠베리는 알프스 여행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숭고의 미학을 기록하였다. 절벽의 끝에서의 “떨리는 발걸음”, 심연을 응시할 때의 “현기증 나는 공포”, 계곡을 흐르는 개천에서 들리는 황홀한 물소리 등은 데니스를 연상시킨다. 틈새벌린 암벽을 보면서 샤프츠베리는 지구 역사의 “혁명”을 생각하였다. 버넷도 그런 것처럼 산맥은 여행자들에게 “오직 숭고한 파멸”, “우리 지구의 퇴보”로 보였다. 하지만 거대하고 음침한 숲에서 그들을 엄습한 “공포”는 도리어 그들 마음에 초감성적인 것에 관한 표상을 환기시킴

55) Dennis, 같은 책, Bd. 1. 80쪽.

56) Dennis, 같은 책, Bd. 1. 217쪽.

57) Dennis, 같은 책, Bd. 1. 80쪽.

로서, 그들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알지 못하는 힘과 다양한 형식의 신성이 그들에게 임재한듯 보였다.”⁵⁸⁾

『도덕주의자』에서는 자연신학적 신조와 플라톤주의가 종합을 이룬다. 음유시인은 전체 우주를 신의 축제로 찬양한다. 인간의 세계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과 완전성으로 창조주의 예견과 신적 지혜를 증거한다. 여행자들은 자연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무한히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자신의 항로를 운행하는 무수한 별자리에서 무한하고 파악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신의 본질이 드러난다. “광대무변 속에서 사유는 사라진다.”⁵⁹⁾ 모어, 버넷 그리고 테니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샤프츠베리에게서 숭고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과 관계하며, 초월적인 것은 외적 자연의 거대한 대상을 바라볼 때 ‘감정’에 의해서 매개되는 그 무엇이다. “우리의 태양은 [...] 신성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⁶⁰⁾ 하지만 창조자는 하늘의 주인일 뿐 아니라, 모든 사물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고 전체에 적합한 지절이 되도록 “경제적으로”⁶¹⁾ 배치하는 가장과 같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신학적인 수많은 실험에 의해 모든 사물의 유용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물은 완전하다. 이런 확신과 함께 그는 자연신학적인 순환논법을 결말짓는다.

이러한 관념주의적 자연개념에 샤프츠베리의 관념주의적 미의 개념이 상응한다. 버넷과 테니스가 아직 피타고라스적인 고전 미학에 정향되어 있고, 그래서 미와 숭고를 체계적으로 구별하려 들었지만, 샤프츠베리는 “형식적 모방에 따라 지어진 호화로운 정원”⁶²⁾만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플라톤주의자인 그에게 ‘모든’ 것은 아름다웠던 것이다. 사물의

58) Shaftesbury,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hg. v John M. Robertson, 2 Bd, New York 1964, 123쪽.

59) Shaftesbury, 같은 책, 112쪽.

60) Shaftesbury, 같은 책, 113쪽.

61) Shaftesbury, 같은 책, 122쪽.

62) Shaftesbury, 같은 책, 125쪽.

감성적 현상은 사물의 참된 본질을 가리운다.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형식 파괴적인 것, 또는 피조물 가운데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도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며, 실제로 이 사물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신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는 질서가 되며, 오염은 건강함이 된다”.⁶³⁾ 관념적인 조망 아래서 유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밀착해 있기 때문에 ‘거칠음’도 마음에 들 수 있다. 형이상학적 전제들은 야생적 자연에 관한 미학적 체험을 정당화하였다. 미학적 체험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감각적 경험이 ‘초월’될 때 그리고 자연향수가 실천적 목적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⁶⁴⁾ 이로서 고대 그리스철학의 ‘테오리아’ 개념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초월과 해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

에디슨 Joseph Addison은 1699년 알프스 여행을 하면서 스승 버넷의 눈으로 자연 경관을 관찰한 바 있다. 하지만 데니스와 샤프츠베리와는 대조적으로 에디슨은 롱기누스의 전통에 서 있다. 에디슨은 롱기누스의 영향 아래 자연의 숭고와 수사학적 숭고를 미학이론으로 다루면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최초의 철학자였으며, 그에 의해서 출간된 『관찰자』(1712-1714)에서는 “상상력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미학적 문제가 논의된다. 여기서 에디슨은 외적 자연을 볼 때 느끼는 “일차적 즐거움”primary pleasures과 예술작품의 감상에서 야기되는 “이차적 즐거움”secondary pleasures을 구분한다. 더 나아가 그는 롱기누스의 안내에 따라 미학적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3범주로 구분한다. 숭고the great,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에 의해서 관심을 야기시키는 기이함the uncommon, 그리고 형태의 완전성에 의해서 마음에 드는 미the beautiful가 그것이다.⁶⁵⁾ 논문의 논점과 연관되는 것은 “숭고”와 “일차적 즐거움”, 즉 숭고

63) Shaftesbury, 같은 책, 122쪽.

64) Shaftesbury, 같은 책, 126쪽 이하.

65) Addison, *The Spectator*, hg. v. D. F. Bond, Bd. 3 Oxford 1964, 540쪽.

한 자연에 관한 미학적 체험이다. 에디슨의 숭고의 미학적 체험은 선행 자들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며 동일한 형이상학적 자연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에디슨에서 숭고는 한눈으로 파악되는 자연풍경, 높이 솟은 산맥과 마찬가지로 황야, 수직으로 매어달린 절벽 그리고 심연 혹은 대양이다. 그는 우리의 상상력은 기꺼이 “상상력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그래서 상상력의 파악능력을 넘어서는 광대한 자연의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자연대상은 인간의 영혼에 전지전능한 존재자의 표상을 불어넣으며 그리고 형이상학적 증명만큼이나 절대적 존재의 확실성을 매개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다시금 상상력은 무한성이라는 중심 개념에 즈음하여 초감성적인 것의 매개자로서 기능한다. 요컨대 “상상력은 오성을 증진시키며, 감각으로 감지되는 숭고함에 의해서, 상상력은 오성 가운데 시간과 공간에 둘러싸이지 않는 존재자의 관념을 산출한다.”⁶⁶⁾

에디슨이 나열한 숭고한 대상의 서열에서 지상적인 것이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며, 그 다음에 별들의 하늘, 그리고 광대무변의 우주공간이 온다. 무한한 창조주로서의 신은 모든 숭고의 원천으로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며, 신은 인간의 영혼이 “숭고한 것 혹은 무한한 것을 파악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쁨”을 감지하도록 인간 영혼을 정돈하였다.⁶⁷⁾

숭고에 관한 영국 이론가들 가운데 에디슨만큼 ‘무한성의 미학’ - 곧 숭고 - 이 코페르니쿠스적 충격의 극복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철학자는 없다. “태양계와 세계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⁶⁸⁾ 인간은 자신이 주요하지 않은 왜소한 형태로 축소되었다고 느끼며, 위대한 창조주의 최소한의 관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이런 공포는 오직 신의 임재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66) Addison, 같은 책, Bd. 4, 234쪽.

67) Addison, 같은 책, Bd. 3, 545쪽.

68) Addison, 같은 책, Bd. 3, 575쪽.

6. 나오는 말

데니스, 샤프츠베리 그리고 에디슨은 절대자의 숭고에서 시작하여 자연을 거쳐 인간의 영혼에 이르거나 또는 인간의 영혼에서 시작하여 외부 자연을 거쳐 절대자에 이르는 방식에 의존하여 자연의 숭고를 미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숭고의 미학을 가능하게 한 자연학에서 형이상학으로의 비약은 야생의 (혹은 숭고한) 자연을 관조할 때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모든 자연현상에서 발견되었다. 지각되는 외부의 자연은 모두 신적인 세계 질서의 감각적 현상으로서, 즉 감각세계를 통한 절대자의 계시로서 파악된다. 플라톤의 자연철학처럼 자연신학이 갖고 있는 이런 형이상학적 자연개념은 감각적 지각을 비로소 미학적 지각으로 전환시키는 포괄적 원리였다. 예컨대 『지구에 관한 종교이론』(버넷)이라는 자연신학적인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당시의 자연에 관한 ‘이론’은 형이상학적인 ‘종교’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세계상을 반영한다. 리터가 지적하듯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절대자를 향한 직관”, 혹은 “관조적 관찰”(anschauende Betrachtung⁶⁹⁾을 의미하였던 ‘테오리아’ 개념에 자연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가 이미 들어있었듯이, 관조contemplation는 자연신학의 중심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성립한 미학적 자연체험을 위한 중심 개념이었다.

자연에 관한 ‘관조적 관찰’의 ‘기관’으로서 감정은 그 자체 감각적이며 초감성적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관으로서의 감정은 자연신학의 전통과 플라톤의 자연철학적 전통에 의해 매개된 형이상학적 자연개념을 자체 안에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전통을 자신의 내부에서 지양시켜 버렸다. 고트하르트 산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어떠한 혀도 말할 수 없고, 어떠한 필치로도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한 시인 하인제Heinse나 또는 카루스Carl Gustav Carus는 모두 그러한 ‘감정’을 드러낸 증인이었다. “산정의 올라,

69) Ritter, 같은 책, 144쪽.

긴 능선을 보라. 강들이 굽이치는 모습과 당신의 시선에 들어온 모든 장관을 굽어보라. 그러면 어떤 감정이 당신을 엄습할까? 그 감정은 당신 내부의 기도이며, 무한한 공간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상실하게 되며, 당신의 자아는 사라진다. 당신은 없으며, 신이 모든 것이다.”⁷⁰⁾

“감각적 현상의 덮개를 걷어내 자연의 정신을 파악한다”⁷¹⁾(훔볼트)거나 “보이지 않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자연을 드러내는 것”⁷²⁾(리터) 등은 근대에 이르러 모두 미학적 감각에 의해 비로소 수행될 수 있는 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미학적 감각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자연 개념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였고 ‘전체로서의 자연’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감각적인 것에서 초감성적인 것으로의 비약을 새로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으로서 미학적 감각은, 리터가 주장하듯이, 자유와 자연에 대한 사회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현대 사회의 기반위에서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으로서의 새로운 기관은 자연을 자연신학적으로 파악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70) Carus, Carl Gustav, Briefe über Landschaftsmalerlei (1835), hg. v. D. Kuhn, Heidelberg 1972, 29쪽.

71) Humboldt, Alexander von, Kosmos. Entwurf einer physischen Erdbeschreibung (1845), Bd. 1, Stuttgart, 45쪽.

72) Ritter, 같은 책, 183쪽.

참고문헌

- 박영선, 「문화과정으로서의 자연미」, in: 『철학탐구』 제1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2
- 안성찬, 『승고의 미학 -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원동력』, 유로서적, 2002
- Addison, Joseph, *The Spectator*, hg. v. D. F. Bond, Bd. 3 Oxford 1964
- Aristoteles, *Metaphysik*, Stuttgart(Reclam) 1984
- Blumenberg, Hans, *Die kopernikanische Wende*, Frankfurt am Main 1965
- Burnet, Thomas, *The Sacred Theory of the Earth* (1691), London 1965
- Brockes, Heinrich Barthold, *Aus der vornehmsten Gedichte aus dem "Irdischen Vergnügen in Gott"*, hg. v. Dietrich Bode, Stuttgart 1965
- Carus, Carl Gustav, *Briefe über Landschaftsmalerlei* (1835), hg. v. D. Kuhn, Heidelberg 1972
- Cicero, *Vom Wesen der Götter*, II, hg. v. W. Gerlach und K. Bayer, München 1978
- Clarence J. Glacken, *Trace on the Rhodian Shore. Nature and Culture in Western Thought from Ancient Times to the Ende of the 18th Century*, Berkeley 1967
- Debray, Régis, 『이미지의 삶과 죽음』, 시각과 언어 1994
- Dennis, John, *The Critical Works of John Dennis*, hg. v. E. N. Hooker, Baltimore 1943
- Dieckmann, Herbert, "Religiöse und metaphysische Elemente im Denken der Aufklärung", in: *Wort und Text Festschrift f. R. Schalk*, hg. v. H. Meier u.a., Frankfurt am Main 1963
- Goethe, Wolfgang von, "An Nees von Esenbeck", 31.10.1823, *Goethes Werke*, Weimarer Ausgabe, Bd. 37
- Jauß, Hans Robert, *Ästhetische Erfahrung und literaturische Hermeneutik*, Frankfurt am Main 1982
- Groh, Ruth und Dieter, "Von den schrecklichen zu den erhabenen Bergen,

- Zur Entstehung ästhetischen Naturerfahrung", in: *Vom Wandel neuzeitlichen Naturbegriffs*, hg. v. H. D. Weber, Konstanz 1989
- Longinus, "Über das Erhabene", in: *Ästhetik der Antike*, hg. v. Joachim Krüger, Berlin und Weimar 1988
- Haller, Albrecht von, *Die Alpen*, hg. v. H. T. Betteridge, Berlin 1959
- Humboldt, Alexander von, *Kosmos. Entwurf einer physischen Erdbeschreibung* (1845), Bd. 1, Stuttgart o. J.
- Monk, Samuel, *The Sublime - A Study of Critical Theories in XVIII Century England*, An Arbor Paperbacks 1960
- More, Henry, *Enchiridion Metaphysicum*, engl. Übers. in: F. I. Mackinnon (Hg.), *Philosophical Writings of H. M.*, New York 1925
- Nicolson, Marjorie Hope, *Mountain Gloom and Mountain Glory - The Development of the Aesthetics of the Infinite*, Seattle, 1997
- Piepmeier, Rainer, *Das Ende der ästhetischen Kategorie 'Landschaft'*, Westfälische Forschungen 30, 1980
- Phillip, Wolfgang, *Das Werden der Aufklärung in theologiegeschichtlicher Sicht*, Göttingen 1957
- Ritter, Joachim, "Landschaft. Zur Funktion des Ästhetisch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Subjektivität*, Frankfurt am Main 1974.
- Friedrich Schiller,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하여』, 청하, 1995
- Seel, Martin, *Eine Ästhetik der Natur*, Frankfurt am Main 1996
- Shaftesbury,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hg. v. John M. Robertson, 2 Bd, New York 1964
- Sieferle, Rolf Peter, "Höfische und bürgerliche Natur", in Hermann Lübke - Elisabeth Störker (Hg.), *Ökologische Probleme im kulturellen Wandel*, München 1986
- _____, "Entstehung und Zerstörung der Landschaft", in: hg. v. M. Smuda, *Landschaft*, Frankfurt am Main 1986
- Zimmermann, Jörg, "Zur Geschichte des ästhetischen Naturbegriffs", in: *Das Naturbild des Menschen*, München 1982

Kritik der Naturästhetik Ritters und die Entstehung des Begriffs von der Landschaft aus der Physikotheologie

Young-Sun, Park

Wann hat man die Natur im ästhetischen Hinblick zu erfahren begonnen? Zu dieser Frage hat Joachim Ritter die These angebracht, daß die Natur erst im zweiten Hälfte des 18. Jahrhunderts ästhetisch betrachtet worden ist. Seine Theorie besagt, daß eine moderne Naturästhetik erst nach Auflösung des alten metaphysischen Weltbildes, und zwar komplementär zum Kluft zwischen Menschen und Natur entstehen konnte. Nach seiner Theorie entsteht mit der Wende zum kopernikanischen Weltbild allmählich eine Leerstelle zwischen Menschen und Natur. Die Naturwissenschaften sind defizitär, weil ihre Natur zunehmend eine verdinglichte, verobjektivierte wird. Aus diesem Mangel wird die Notwendigkeit ästhetischer Vermittlung zwischen Menschen und Natur gegründet. Denn Ritter vertritt die Ansicht, daß mit der Herausbildung eines neuen Organs des ästhetischen Gefühls das totalitäre Erleben der Natur erst möglich wird.

Aber es ist schwer vorstellbar, daß Natur, wie sie auch wilde und unkultivierte Natur sein mag, vor der Moderne nicht ästhetisch als Landschaft wahrgenommen wurde. In der alten Greek hat schon Longinus über das Erhabene der Natur gesagt. Daraus wird klar, daß die philosophisch fundierte Theorie Ritters gegen historisch orientierte Frage weitgehend immun ist. Also kann man die Folge ziehen, daß sie nicht als eine chronologische Aussage über die Entstehung moderner Naturästhetik, sondern in erster Linie als eine funktionale Theorie zu verstehen ist.

Die Gegenthese zu Ritter lautet wie folgt: Ästhetische Naturerfahrung entsteht bereits in der vormodernen Gesellschaft, d. h. auf dem Boden eines metaphysischen Naturbegriffs, der sich in platonisch-christlicher

리터의 자연미학에 대한 비판과 자연신학에 의한 '풍경'의 탄생 / 박영선

Tradition die Welt physikotheologisch versteht.

Schlüsselwörter: Naturästhetik, physikotheologisch, Theoria, Landschaft

박영선 e-mail : triamy@hanmail.net

K C I